

6.15 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통일을 앞당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

### 조선인민군 공군 제1017군부대를 시찰하시고 조선인민군 공군 제378군부대 비행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오중홍7대대장을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공군 제1017군부대를 시찰하시고 비행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지휘소에 오르시어 비행사들의 비행훈련을 지도하시였다.

훈련이 시작되자 결전의 시각을 기다리며 훈련하고 또 훈련해온 비행사들은 조종간을 육박의 총창인양 억세게 틀어잡고 하늘로 날아올라 평시에 련마해온 자기들의 높은 비행술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비행지휘를 하고있는 공화국영웅 허룡을 알아보고 조국의 영광에 침범하였던 미제의 전략적잠기를 격퇴한 그의 과감한 전투행동을 다시금 치하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어머니장군님의 뜻깊은 사적이 어려있는 비행을 돌아보신 최고령도자께서는 사회주의조국수호의 귀중한 전투기재인 비행기관리를 잘하고 있는 군인들을 치하하시였다.

조국수호의 항로를 맨 앞장에서 날을 수 있게 사적비행기관리를 더 잘하기를 바란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곁에 세우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훈련을 보신 다음 군부대군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최고령도자를 모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은 군부대군인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와 《김정은 결사옹위!》의 구호를 목매어 부르며 격정의 눈물로 두 불을 적시였다.

최고령도자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군인들에게 손을 저어 답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군부대에서 무장장비를 현대화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새로 제작한 전투기술기재들과 군사대상물들을 돌아보시며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이어 군부대의 군인회관과 관하구분대 비행사들의 침실, 식당, 강실들을 돌아보

시였다.

비행사들의 탁상훈련모습도 보아주시고 적들의 변화된 전쟁방식과 전투행동조법, 무장장비의 발전추세에 맞게 우리 식의 전법과 전술을 능란하게 활용하여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수 있도록 머리를 쓰고 사색하고 실천하고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이날 군부대장인 허룡의 가정을 방문하시였다.

어버이의 품을 파고드는 그들의 등을 다정히 어루만져주신 최고령도자께서는 허룡의 부부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어둠이 짙게 드리운 밖에 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군인가족들의 마음을 담아 건강을 바라는 허룡의 안해에게 최고사령관이 비행사의 안해들에게 남편들을 부락하고 간다고 전해달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오중홍7대대장을 수여받은 조선인민

군 공군 제378군부대 비행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영접보고를 받으신 다음 군부대의 경계근무수행정형을 료해하시고 비행사들의 비행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최고령도자께서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가르며 대담하고 과감하게 기동하는 비행사들의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시면서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우리 비행사들이 훈련을 잘한다고 치하하시였다.

모든 비행사들이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훈련도 전투라하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비행훈련을 힘있게 벌려 하늘의 유능한 전투비행사로 준비되게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훈련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이어 군부대관하 구분대 비행사들의 침실, 식당, 강실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군부대의 군사대상물들을 돌아보시며 귀중한 가르

치심을 주시였다.

최고령도자께서는 동행한 지휘성원들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성원들에게 인민군대의 싸움준비를 완성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군부대의 군인들이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워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군부대군인들은 53일만에 또다시 자기들의 초소에 오시어 크나큰 사랑과 영광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를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치였다.

격정의 환호를 터치는 군인들에게 오래도록 손을 저어 따뜻한 답례를 하신 최고령도자께서는 지휘관들의 손을 잡아 주시면서 건강하여 훈련을 더 잘하라고 당부하시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

### 서부지구 항공구락부 선수들의 모범경기를 보시고 조선인민군 군악단연주회를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서부지구 항공구락부 선수들의 모범경기를 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먼저 무선조종모형항공기의 모범경기를 보아주시였다.

서부지구 항공구락부 선수들은 무선조종모형항공기를 가지고 여러가지 기교동작들을 훌륭히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서부지구 항공구락부 선수들이 평시에 련마한 자기들의 항공기술을 잘 보여준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이어 락하산선수들의 모범경기를 보아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집단정점강하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이 지정된 정점에 정확히 착지하는가를 주의깊

게 살피시면서 전자식정점판기에 높은 점수가 표시될 때마다 선수들의 경기성과를 축하하시어 박수를 보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모범경기가 끝난 후 선수들을 만나주시고 모든 선수들이 하나와 같이 락하산을 잘 탄다고 높이 평가하시였으며 선수들이 리용하는 락하산의 질을 가늠해보시고서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더 좋은 락하산을 보내주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오늘 모든 선수들이 높은 항공체육기술을 보여주었다고 다시금 치하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항공구락부에 남편과 안해가 다같이 락하산을 타는 선수들이 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전철구, 김성심부부와 김형준, 강혜심부부를 곁에 세우시고 또다시 사랑

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서부지구 항공구락부를 비롯한 항공체육부문의 감독들과 선수들이 조선로동당의 주체적인 체육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나라의 항공체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조선인민군 군악단연주회를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과 국가, 무력기관의 책임 일군들, 인민군장병들이 연주회를 함께 보았다.

《애국가》가 주악된 다음 관람자들은 아버지장군님을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여 목상하였다.

연주회에서는 취주악 《장군님은 태양

으로 영생하신다》, 《장군님은 승리의 기치》, 《조선인민군가》, 《한손에 총을 한손에 낫과 마치를》, 《병사의 발자욱》, 취주악과 락곡 《조국보위의 노래》, 《해안포병의 노래》, 취주악 《조선로동당 만세》, 《메테가》, 《청년사회주의건설자 행진곡》을 비롯한 곡목들이 연주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를 안겨주는 연주회는 취주악 《발걸음》,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승리의 열병식》으로 끝났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출연자들에게 손을 저어 답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연주회에 출연한 연주가들이 군악단으로서의 고유한 특성을 잘 살려 우리 군대와 인민들을 혁명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전투적인 연주회를 진행한데 대하여 평가하

시였다.

조선인민군 군악단의 창작가, 연주가들이 아버지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창조활동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해 지혜를 합치고 심혈을 기울이는 과정에 매 곡목들에 대한 편곡도 잘하였고 지휘자들의 형상수준도 높아졌으며 연주기법에서도 혁신을 가져왔다고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조선인민군 군악단의 공연활동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인민군 군악단의 창작가, 연주가들이 앞으로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을 조선로동당의 선군혁명위업수행에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투쟁의 노래를 더 높이, 더 우렁차게 울려가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신 김정일장군님의 혁명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다

## 전국주체사상토론회 진행

탁월한 사상리론활동으로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연구체득하기 위한 전국주체사상토론회가 2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김기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김용진 내각부총리, 성, 중앙기관, 사회단체 일군들, 평양시내 당, 정권, 경제기관, 과학, 교육, 문화예술, 보건, 출판 보도부문, 당간부양성기관, 혁명사적부문 일군들이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여 목상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위생의 로고를 바치시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발전봉부화하시였으며 실천에 빛나게 구현해오신 불멸의 업적을 해설론중한 6건의 논문이 발표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주체

사상을 자주시대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신 사상리론의 영재》라는 제목으로 토론한 로동신문사 책임주필 김기룡은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주체사상을 정립체계화하시어 자주시대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서의 력사적지위를 뚜렷이 하여주시는 현시대의 가장 걸출한 사상리론가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와 사회적사원리, 지도적원칙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한 불멸의 명저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에 의하여 혁명적수령관의 원리와 그에 기초한 수령중심론이 과학적으로 정립체계화되고 혁명적조직관과 군중관, 도덕관에 관한 사상리론의 새 경지들이 개척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부후의 사상리론활동이 있어 주체사상은 세대를 이어 자기의 뚜렷한 성격

과 내용을 고수하며 자주시대의 지도적지침으로 끝없이 빛을 뿌리게 되었다.

사회과학원 원장 태형철은 《주체사상은 인간의 운명개척에서 혁명적변혁을 가져온 위대한 철학사상》이라는 제목의 토론에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주체사상은 무엇보다도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을 위한 투쟁을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투쟁으로 확고히 완성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과학적인 기치이다.

주체사상은 다음으로 인민대중을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무장시켜 자기 운명의 주인, 운명개척을 위한 투쟁의 주체로 든든히 준비시키게 하는 혁명적인 기치이다. 주체사상은 또한 인간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가장 과학적인 방도를 명시한 완벽한 기치이다.

《주체사상은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 사상리론적기초》라는 제목으로 토론한 김일성고급당

학교 교장 차용명은 주체사상이 우리 당건설의 사상리론적기초로 되는데 대하여 논증하였다.

김일성정치대학 학장 차경일은 《주체사상은 총대의 위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해주는 백전백승의 기치》라는 제목의 토론에서 주체사상, 선군사상은 혁명군대를 무적의 강군으로 키워 사회주의의 승리를 군사적으로 담보해나가는 길을 밝혀 주고있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리론은 주체사상이 빛나게 구현된 가장 혁명적인 국가건설리론》이라는 제목의 토론에서 인민경제대학 총장 진경남은 조선로동당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리론은 인민위원의 사상과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해주는것을 근본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는 주체사상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데 대하여 논증하였다.

황해북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박태덕은 《주체사상을 근본바탕

으로 하는 김일성민족의 위대한 정신력은 강성국가건설의 위력한 무기》라는 제목으로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

이 위대한 주체사상의 조국에서 살며 투쟁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령도따라 조

선로동당의 용대한 강성부흥전략

을 실현하는 투쟁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킴으로써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

떨쳐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 동 방 조 선 의 2 0 1 2 년 첫 발 걸 음

밝아온 2012년의 아침은 전세계가 조선을 주목한 아침이었습니다. 하늘처럼 맑고 따르던 자기 정도자를 뜻밖에 맑고 눈물과 곡성에 젖었던 조선이 이제 새해의 첫걸음을 어떻게 떼는가를 온 행성이 주시하여보던 2012년 첫 아침이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살고있는 나는 민족의 대국상 이후 조선의 운명과 전도에 대해 제 나름으로 이야기하는 행성의 각이한 목소리들을 들을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진정어린 격려와 기대의 목소리들도 많고 동정과 위로의 말도 있는가하면 불순한 목적으로 《변화》와 《새로운 길》을 력설하는 목소리들도 섞여있었습니다.

민족대국상의 나날을 조국동포들과 함께 보낸 나는 행성의 이런 목소리들을 들으면서 조국의 새해를 지켜보고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조국에서 날아온 격동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105땅크사단을 말하며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저의 남편인 안동수가 아버지주석님의 부르심을 받들고 정치부러던장으로 싸우다 전사한 잊을수 없는 부대입니다.

조국에서도 105땅크사단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의 손길이 제일 많이 어려웠던 사단이고 선군정치라고 하면 105땅크사단부터 머리에 떠올리게 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1960년 8월 25일 선군경도의 뜻깊은 첫 자욱을 새긴선 부대도 105땅크사단이고 총대로 령도자를 결사옹위하려는 신념과 맹세의 구호를 제일 높이 추켜들여온 부대도 이 사단입니다.

일찍부터 나라와 민족의 존엄은 군사력에 의해 담보된다고 하시면서 군력강화에 모든것을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105땅크사단을 특별히 중시하시면서 쉬임없는 현지시찰을 진행해오셨습니다.

나는 조국방문시 여러차례 가족들과 함께 사연깊은 이 부대를 찾아가보았습니다. 그곳에 깃든 장군님의 령도사의 갈피들을 더듬어보느라 눈바람, 찬비를 다 맞으며선 선군장정의 길을 걸으셨던 장군님의 한생의 로고 사 사무치게 안겨와 격정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지난 12월의 조국체육기간 한 인민군장령이 들려준데 의하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의 마지막 시기까지 105땅크사단을 찾아가신 회수는 무려 20여차례나 된다 고 합니다. 한 나라의 령도자께서 일개 군부대를 이처럼 많이 현지시찰하신것은 동서고금에 없는 일입니다.

두해전 정초에도 장군님께서 이 사단에 오시어 105땅크사단은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에 령도자를 앞장에서 보위하여온 영광스러운 근위부대라고 하시며 땅크병들이 선군대오의 맨 앞장에서 근위사단의 영예를 계속 빛내리라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연깊은 이 부대에 우리 민족이 받아들여올린 또 한분의 위인이신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2012년의 첫 아침제사를 받으시며 령도의 큰 발자국을 찍으셨으니 어찌 감격하지 않을수 있겠습니까.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땅크부대시찰은 보통의 군부대방문이 아닙니다. 우리 조국과 민족의 오늘과 먼 레일의 운명파도 직결되어있는 사변적인 방문입니다.

그것이 갖는 중대한 력사적의미의 하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이끄시는 조선이 2012년을 기점으로 다른 길, 아니라 지금까지 걸어온 길, 선군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갈것이라는것입니다.

너무도 뜻밖에 아버지장군님을 잃고 나라의 중하를 한몸에 걸머지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하셔야 할 일도 많고 찾아가셔야 할 단위로 많을것입니다. 그런데도 그이께서는 새해의 첫

공식방문지로 105땅크사단을 선택하신것입니다. 이것은 주석님께서 백두밀림에서 개척하시고 장군님께서 승리만을 펼쳐오신 선군에국위업을 변함없이 계승하고 끝까지 완성해나가시겠다는 확고한 결심과 의지의 선언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연합뉴스》, 《사람일보》를 비롯한 남조선언론과 서방의 언론들도 《최고사령관의 첫 공식활동으로 105땅크사단을 시찰》, 《김정은최고사령관이 2012년 첫날시찰을 류경수땅크사단으로 삼은것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유훈인 선군정치를 계속 이어갈것임을 시사한것》이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은 세계가 주목하여 널리 보도하고있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땅크부대시찰소식을 들으면서 나는 조국에서 고난의 행군을 하던 때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를 바라지 말라는 력사의 선언을 울리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날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출중한 위인상중에서도 세인이 가장 감복하는것은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고결한 총정과 도덕의리의 세계 나날 세계가 똑똑히 목격한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그이께서는 새해를 맞이하여 금수산기념궁전에 영성의 모습으로 계시는 아버지주석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새해의 인사를 드리고 그 길로 그분들의 령도사적이 제일 많이 어려웠던 105땅크사단을 찾아가시었습니다. 그이께서 장군님을 얼마나 절절히 그리시고 따르시셨으면 그곳 부대장병들앞에서 105땅크사단은 명칭만 불러도 배우는 령도의 체취와 체온이 느껴진다는 가슴뜨거운 말씀을 하시셨습니까.

김정은최고령도자의 105땅크사단시찰은 아버지장군님과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영원한 그리움의 세계에 사는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기쁨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반면에 공화국을 어찌보려는 제국주의 침략세력에게는 공포와 질투를 안겨준 특기할 사변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땅크부대시찰은 아버지장군님과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영원한 그리움의 세계에 사는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기쁨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반면에 공화국을 어찌보려는 제국주의 침략세력에게는 공포와 질투를 안겨준 특기할 사변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105땅크사단시찰은 아버지장군님과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영원한 그리움의 세계에 사는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기쁨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반면에 공화국을 어찌보려는 제국주의 침략세력에게는 공포와 질투를 안겨준 특기할 사변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105땅크사단시찰은 아버지장군님과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영원한 그리움의 세계에 사는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기쁨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반면에 공화국을 어찌보려는 제국주의 침략세력에게는 공포와 질투를 안겨준 특기할 사변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땅크부대시찰은 아버지장군님과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영원한 그리움의 세계에 사는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기쁨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반면에 공화국을 어찌보려는 제국주의 침략세력에게는 공포와 질투를 안겨준 특기할 사변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땅크부대시찰은 아버지장군님과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영원한 그리움의 세계에 사는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기쁨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반면에 공화국을 어찌보려는 제국주의 침략세력에게는 공포와 질투를 안겨준 특기할 사변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땅크부대시찰은 아버지장군님과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영원한 그리움의 세계에 사는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기쁨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반면에 공화국을 어찌보려는 제국주의 침략세력에게는 공포와 질투를 안겨준 특기할 사변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땅크부대시찰은 아버지장군님과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영원한 그리움의 세계에 사는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기쁨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반면에 공화국을 어찌보려는 제국주의 침략세력에게는 공포와 질투를 안겨준 특기할 사변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땅크부대시찰은 아버지장군님과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영원한 그리움의 세계에 사는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기쁨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반면에 공화국을 어찌보려는 제국주의 침략세력에게는 공포와 질투를 안겨준 특기할 사변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땅크부대시찰은 아버지장군님과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영원한 그리움의 세계에 사는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기쁨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반면에 공화국을 어찌보려는 제국주의 침략세력에게는 공포와 질투를 안겨준 특기할 사변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땅크부대시찰은 아버지장군님과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영원한 그리움의 세계에 사는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기쁨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반면에 공화국을 어찌보려는 제국주의 침략세력에게는 공포와 질투를 안겨준 특기할 사변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땅크부대시찰은 아버지장군님과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영원한 그리움의 세계에 사는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기쁨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반면에 공화국을 어찌보려는 제국주의 침략세력에게는 공포와 질투를 안겨준 특기할 사변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땅크부대시찰은 아버지장군님과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영원한 그리움의 세계에 사는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기쁨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반면에 공화국을 어찌보려는 제국주의 침략세력에게는 공포와 질투를 안겨준 특기할 사변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땅크부대시찰은 아버지장군님과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영원한 그리움의 세계에 사는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기쁨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반면에 공화국을 어찌보려는 제국주의 침략세력에게는 공포와 질투를 안겨준 특기할 사변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땅크부대시찰은 아버지장군님과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영원한 그리움의 세계에 사는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기쁨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반면에 공화국을 어찌보려는 제국주의 침략세력에게는 공포와 질투를 안겨준 특기할 사변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땅크부대시찰은 아버지장군님과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영원한 그리움의 세계에 사는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기쁨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반면에 공화국을 어찌보려는 제국주의 침략세력에게는 공포와 질투를 안겨준 특기할 사변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땅크부대시찰은 아버지장군님과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영원한 그리움의 세계에 사는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기쁨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반면에 공화국을 어찌보려는 제국주의 침략세력에게는 공포와 질투를 안겨준 특기할 사변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땅크부대시찰은 아버지장군님과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영원한 그리움의 세계에 사는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기쁨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반면에 공화국을 어찌보려는 제국주의 침략세력에게는 공포와 질투를 안겨준 특기할 사변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땅크부대시찰은 아버지장군님과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영원한 그리움의 세계에 사는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기쁨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반면에 공화국을 어찌보려는 제국주의 침략세력에게는 공포와 질투를 안겨준 특기할 사변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땅크부대시찰은 아버지장군님과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영원한 그리움의 세계에 사는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기쁨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반면에 공화국을 어찌보려는 제국주의 침략세력에게는 공포와 질투를 안겨준 특기할 사변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땅크부대시찰은 아버지장군님과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영원한 그리움의 세계에 사는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기쁨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반면에 공화국을 어찌보려는 제국주의 침략세력에게는 공포와 질투를 안겨준 특기할 사변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땅크부대시찰은 아버지장군님과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영원한 그리움의 세계에 사는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기쁨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반면에 공화국을 어찌보려는 제국주의 침략세력에게는 공포와 질투를 안겨준 특기할 사변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땅크부대시찰은 아버지장군님과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영원한 그리움의 세계에 사는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기쁨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반면에 공화국을 어찌보려는 제국주의 침략세력에게는 공포와 질투를 안겨준 특기할 사변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땅크부대시찰은 아버지장군님과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영원한 그리움의 세계에 사는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기쁨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반면에 공화국을 어찌보려는 제국주의 침략세력에게는 공포와 질투를 안겨준 특기할 사변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땅크부대시찰은 아버지장군님과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영원한 그리움의 세계에 사는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기쁨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반면에 공화국을 어찌보려는 제국주의 침략세력에게는 공포와 질투를 안겨준 특기할 사변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땅크부대시찰은 아버지장군님과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영원한 그리움의 세계에 사는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기쁨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반면에 공화국을 어찌보려는 제국주의 침략세력에게는 공포와 질투를 안겨준 특기할 사변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땅크부대시찰은 아버지장군님과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영원한 그리움의 세계에 사는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기쁨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반면에 공화국을 어찌보려는 제국주의 침략세력에게는 공포와 질투를 안겨준 특기할 사변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땅크부대시찰은 아버지장군님과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영원한 그리움의 세계에 사는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기쁨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반면에 공화국을 어찌보려는 제국주의 침략세력에게는 공포와 질투를 안겨준 특기할 사변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땅크부대시찰은 아버지장군님과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영원한 그리움의 세계에 사는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기쁨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반면에 공화국을 어찌보려는 제국주의 침략세력에게는 공포와 질투를 안겨준 특기할 사변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땅크부대시찰은 아버지장군님과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영원한 그리움의 세계에 사는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기쁨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반면에 공화국을 어찌보려는 제국주의 침략세력에게는 공포와 질투를 안겨준 특기할 사변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땅크부대시찰은 아버지장군님과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영원한 그리움의 세계에 사는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기쁨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반면에 공화국을 어찌보려는 제국주의 침략세력에게는 공포와 질투를 안겨준 특기할 사변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땅크부대시찰은 아버지장군님과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영원한 그리움의 세계에 사는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기쁨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반면에 공화국을 어찌보려는 제국주의 침략세력에게는 공포와 질투를 안겨준 특기할 사변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땅크부대시찰은 아버지장군님과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영원한 그리움의 세계에 사는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기쁨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반면에 공화국을 어찌보려는 제국주의 침략세력에게는 공포와 질투를 안겨준 특기할 사변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땅크부대시찰은 아버지장군님과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영원한 그리움의 세계에 사는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기쁨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반면에 공화국을 어찌보려는 제국주의 침략세력에게는 공포와 질투를 안겨준 특기할 사변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땅크부대시찰은 아버지장군님과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영원한 그리움의 세계에 사는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기쁨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반면에 공화국을 어찌보려는 제국주의 침략세력에게는 공포와 질투를 안겨준 특기할 사변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땅크부대시찰은 아버지장군님과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영원한 그리움의 세계에 사는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기쁨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반면에 공화국을 어찌보려는 제국주의 침략세력에게는 공포와 질투를 안겨준 특기할 사변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땅크부대시찰은 아버지장군님과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영원한 그리움의 세계에 사는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기쁨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반면에 공화국을 어찌보려는 제국주의 침략세력에게는 공포와 질투를 안겨준 특기할 사변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땅크부대시찰은 아버지장군님과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영원한 그리움의 세계에 사는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기쁨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반면에 공화국을 어찌보려는 제국주의 침략세력에게는 공포와 질투를 안겨준 특기할 사변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땅크부대시찰은 아버지장군님과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영원한 그리움의 세계에 사는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기쁨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반면에 공화국을 어찌보려는 제국주의 침략세력에게는 공포와 질투를 안겨준 특기할 사변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땅크부대시찰은 아버지장군님과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영원한 그리움의 세계에 사는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기쁨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반면에 공화국을 어찌보려는 제국주의 침략세력에게는 공포와 질투를 안겨준 특기할 사변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땅크부대시찰은 아버지장군님과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영원한 그리움의 세계에 사는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기쁨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반면에 공화국을 어찌보려는 제국주의 침략세력에게는 공포와 질투를 안겨준 특기할 사변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땅크부대시찰은 아버지장군님과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영원한 그리움의 세계에 사는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기쁨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반면에 공화국을 어찌보려는 제국주의 침략세력에게는 공포와 질투를 안겨준 특기할 사변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땅크부대시찰은 아버지장군님과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영원한 그리움의 세계에 사는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기쁨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반면에 공화국을 어찌보려는 제국주의 침략세력에게는 공포와 질투를 안겨준 특기할 사변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땅크부대시찰은 아버지장군님과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영원한 그리움의 세계에 사는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기쁨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반면에 공화국을 어찌보려는 제국주의 침략세력에게는 공포와 질투를 안겨준 특기할 사변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땅크부대시찰은 아버지장군님과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영원한 그리움의 세계에 사는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기쁨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반면에 공화국을 어찌보려는 제국주의 침략세력에게는 공포와 질투를 안겨준 특기할 사변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땅크부대시찰은 아버지장군님과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영원한 그리움의 세계에 사는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기쁨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반면에 공화국을 어찌보려는 제국주의 침략세력에게는 공포와 질투를 안겨준 특기할 사변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땅크부대시찰은 아버지장군님과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영원한 그리움의 세계에 사는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기쁨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반면에 공화국을 어찌보려는 제국주의 침략세력에게는 공포와 질투를 안겨준 특기할 사변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땅크부대시찰은 아버지장군님과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영원한 그리움의 세계에 사는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기쁨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반면에 공화국을 어찌보려는 제국주의 침략세력에게는 공포와 질투를 안겨준 특기할 사변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땅크부대시찰은 아버지장군님과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영원한 그리움의 세계에 사는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기쁨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반면에 공화국을 어찌보려는 제국주의 침략세력에게는 공포와 질투를 안겨준 특기할 사변이라 해야 할

## 백두산 3대 장군을

에짜도르 볼리바르주 갈루마시에서 명예시민으로 모시기로 결정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를 에짜도르 볼리바르주 갈루마시에서 명예시민으로 모시기로 결정하였다.  
백두산3대장군께 명예시민칭호를 수여해드림에 대한 결정서가 1월 20일 시정부에서 채택되었다.

##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방글라데슈신문사 주필연단에서 명예회원으로 모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방글라데슈신문사주필연단에서 명예회원으로 모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 드리는 명예회원증서를 전달하는 행사가 1월 19일 방글라데슈신문사주필연단 청사에서 진행되었다.  
행사는 방글라데슈신문사주필연단 집행위원회 인사들과 방글라데슈 각 신문사

지난해 12월 평양을 다녀간 정기렬 재미동포의 방문소감이 남조선의 《통일뉴스》에 게재됐다.  
그가 북녘동포들의 모습에서 본 조국방문인상을 보면 크게 두가지 내용으로 생각된다.  
하나는 민족의 대국상을 치른 조국인민들의 숭결을 체험한 취재조건이다.  
그는 평양에 도착해서 떠날 때까지 체류기간 위대한 아버지이신 김정일장군님을 잃은 절로함과 비로함애 몸부림치는 모습 그리고 뼈아픈 상실의 비분을 이겨내고 분연히 마음을 다잡고 일떠서는 불사신의 그 모습을 방불히 목격했다.  
《말 그대로 온 세상이 슬픔과 비통에 빠진 피눈물의 바다였다. 북녘동포들의 눈길을 제대로 마주치는것조차 어려웠것이었다.》고 심금을 토로했다.  
에국에는 민족이란 있을수 없다고 하시며, 자신께서는 그날들에서 행복을 찾지 않

었다. 김정은최고령도자에 대한 관심과 신뢰, 호모열기는 우리 민족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비상이 울리고있다.  
그이의 위인성에 대해 남조선의 《민주로총》 인터넷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  
《북의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후계자로 공식등장하자마자 일약 세계적명인으로 되었다.  
미국 CNN방송은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적범위에서 투표로 선정한 10대관심인물 후보에 김정은부위원장을 포함시켰고 2010년 세계 최고관심의 10대인물로 선정했다.

## 피눈물의 바다에서 래일의 연적으로

한 해외동포의 조국방문소감에 대한 리해 -  
인민이 피눈물의 바다에서 용용히 일어설수 있는것은 또 한층의 출중한 위인이시고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계시기때문이었다.  
그이께서 피눈물의 바다에서 몸부림치는 온 나라 인민들을 사상과 의지의 힘으로, 사랑과 더망의 손길로 힘있게 고무격려하시며 따스이 보살펴주시며 일으켜세워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뜻과 위업을 총직하게 이어가시는 그이께서 계신다는 믿음과 신뢰가 천만사람의 마음속에 애국충정의 신념과 의지, 래일에 대한 희망과 락관의 기동으로 억세게 뿌리내렸다.  
정기렬동포의 방문소감의 다른 하나는 핵무기보다 강력한 북녘동포들의 일심단결이 하나의 구체적인 력사

현실이라는것이다.  
그는 취재기에 《거의 70년에 이뤄진 기나긴 북미 대결사를 인류사에 아직은 전무한 계승되는 기적의 력사로 정의할수 있다던 그 기적을 가능케 해온 힘의 원천은 한마디로 일심단결이다. 북녘동포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일심단결은 이미 그토록 생활 곳곳에 깊숙이 체현되어 있는 북녘사회와 그들 삶의 아주 구체적인 현실인데 같았다. 일심단결이라는것이 만약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령도밑에 그 위력을 백방으로 다지며 강성부흥의 위대한 정성기를 마련하고있는 것이다.  
필자가 조국을 방문한 나날은 일심단결이야말로 조선의 상징이며 필승불패의 보검이라는것을 체부로 절감한 나날이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끝까지 지켜갈 불라는 열의에 충만되어있다. - 김일성종합대학에서 -

적민음과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김정은대장을 후계자로 공식 선출한 후 북은 보다 력동적인 활력을 피쳤고 세계를 놀래우는 사변들을 연이어 터쳐냈다.  
북은 팔복할만 한 경제건설성과들을 생생히 창조하면서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

었다.  
북은 미국뿐아니라 북에 대한 세계적인식과 견해도 바꾸어놓았다. 극우익보수 세력들의 의곡된 선전의 영향으로 북이 미국에 굴복하지 않았는가고 우려하던 세계가 북의 발전하는 현실에  
세계적관심의 최고초점  
서, 《북의 경제고사》라 하는것이 거짓말이라는것을 알게 되었다.  
주체철, 주체체육, 주체비료, CNC설비, 핵기술 등 자체의 자원과 기술에 의거하여 완전히 국산화된 최첨단기술에 기초한 경제명백들이 탄생 또는 부활함으로써 북의 경제력이 자  
서의 강성대국건설이 현실화되고있다는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격화시키는 미국과 《한국》설이라는 반북침략전쟁연습에 대한 북의 단호한 대응과 그 후의 신속성있는 대응은 북을 명백한 승자로, 조선반도와 세계평화의 수호자로

본사기자



해내의 동포들!  
오늘 우리는 자주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갈 새로운 신심과 승리에 대한 확언에 넘쳐서 해 2012년의 장엄한 진군길에 나섰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올해에 내외반통일세력들의 온갖 방해책동을 단호히 물리치고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하나로 뭉쳐 6.15통일시대를 꽃피우어 나아가려는 굳은 결의로 총만 되어야 한다.  
지금 반통일세력들은 외세와 아합하여 동족대결책동에 더욱 미쳐달려면서 6.15가 열어놓은 민족화해와 단합, 통일의 길을 완전히 차단하고 우리의 진전을 가로막아보려고 최후발악을 하고 있다.  
지어 괴뢰적분당은 민족의 대국상으로 몸부림치며 피눈물을 뿌리고있는 동족의 가슴에 칼질을 하고 총부리를 들이대는 만고의 죄악을 덧씌우며 악랄하게 도전해나서고있다.  
6.15의 소중한 진취물을 여지없이 짓밟고 북남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과격으로 몰아넣은 리명박악적분당에 대한 온 겨레의 중추와 분노는 지금 하늘땅에 사무치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을 등지고 외세에 빌붙어 더

# 해내외 전체 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러운 잔병을 부지해보려고 날뛰는 역적무리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이 하늘아래에서, 이 땅에서 함께 살수 없는 극악한 역적분당에게 력사와 민족은 이미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친미사대와 동족대결, 반인민적악정으로 최악의 위기에 빠져있는 괴뢰보수분당을 과멸에로 몰아넣기 위한 남조선 각계층의 투쟁의 불길은 활화산처럼 거세차게 타번지고있다.  
괴뢰분당이 제아무리 발악을 해도 자주와 민주, 통일을 지지하는 겨레의 정의로운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새해의 통일진군길에 나선 우리 겨레의 투쟁기세는 총천하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온 겨레와 함께 조국통일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뜻깊은 올해에 자주통일의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려는 일념으로부터 해내의 동포들에게 이 호소문을 보낸다.  
해내의 온 겨레는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모두가 애국애족의 기치밑에 굳게 단합하고 또 단합하여

은 겨레가 자주권과 생존권, 민주주의적리리를 지켜 일떠선 남조선인민들의 의로운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자!  
민족의 화해와 단합은 조국통일의 전제이며 담보이다.  
우리 민족이 화해하고 단합하면 자주통일과 공동번영의 길이 열리지만 적대하고 대결하면 불행과 재난밖에 차배질것이다.  
이 땅에 화해와 단합의 물결이 세차게 끓어오르면 6.15시대는 결코 어제날의 추억으로만 될수 없다.  
민족내부의 불신과 대결을 바라는것은 오직 침략적인 외세와 그와 결탁한 반통일세력뿐이다.  
해내의 온 겨레가 떨쳐나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길을 과감히 열어나가자!  
민족공통의 리익을 첫 자리에 놓고 모든것을 여기에 복속시켜나가자!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북남사이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온갖 악법들과 제도적장치를 더이상 용납할수 없다.  
최세의 반민족, 반통일, 반

합치게 전개해나가자!  
해내의 동포들!  
남조선의 현 괴뢰집권세력의 사대매국적책과 동족대결적본심은 이미 백일하에 날날이 드러났다.  
민족의 암이며 통일의 원수인 괴뢰보수분당을 단호히 징벌하고 자주통일의 새 아침을 하루빨리 안아오려는것은 온 겨레의 확고한 의지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단합된 힘으로 친미보수세력의 반민족적, 반통일적, 반인민적통치를 끝장내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새 세대를 세우기 위한 정의의 투쟁에 한사랄함이 떨쳐나서야 한다.  
우리는 진보와 개혁을 지향하는 남조선의 각 정당, 단체들과 광범한 대중의 활동에 굳은 지지와 연대성을 보내며 해내의 동포들과 어깨결고 민족의 대단결과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다.  
해내의 전체 조선동포들!  
올해는 력사적인 7.4공동성명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주제101(2012)년 1월 31일 평양

##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총회 진행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총회가 1월 31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총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체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초상화가 걸려져있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총회에서는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올해에 자주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갈데 대한 문제가 토의되었다.  
보고를 김형성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위원장이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아버지를 잃은 크나큰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올해를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시기에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총회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최근 남조선의 《MBC》방송사 언론인들이 리명박보수당국의 언론탄압책동에 항의하여 전면적인 투쟁을 벌리고있다.  
그들은 현 집권자가 자기의 측근들을 방송사의 요직에 들어앉힘으로써 방송을 가장 불공정한 언론기관으로 만든데 대해서와 바른말을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려는 사족의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였다.  
독재권력에 놀리워 지긋지긋한 유산으로 물려준 바론말도 못하고 불공정보도를 한데 대해서도 언론인의 량심으로 자책하며 이제부터라도 바른 언론이 되기 위해 투쟁할것이라는 의지를 과력하고있다. 남조선의 많은 언론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성원들은 독재 《정권》에 항거해나선 《MBC》방송사 언론인들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보내고있다.  
그들은 이번 투쟁이 《지

최고당하였다. 하여 극우보수언론인 《조.중.동》은 말할것도 없고 《KBS》, 《MBC》를 비롯한 언론들까지 독재권력의 나팔수가 되어 현실을 외곡보도하는 비극적인 현실이 펼쳐지게 되었다.  
보수언론들은 독재 《정권》과 화환이 되어 자주, 라지고 《정권의 나팔수》라는 인민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리명박 《정권》이 남조선인민들의 규탄배격을 받고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지금 더이상 독재 《정권》과 한배를 라고갈수 없으며 정의와 진실을 투쟁으로 지켜야 한다는 언론인들의 자각과 의지가 오늘의 과업투쟁을 부른것이다.  
이것은 너무나도

## 정의를 지키려는 의로운 투쟁

집권세력에 대한 쌓이고 쌓인 분노의 폭발로서 언론의 자유와 공정성을 되찾으려는 의로운 투쟁이다.  
리명박이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은 후 지난 수년간 남조선의 언론계는 독재 《정권》의 수중에 완전히 장악되었다.  
남조선의 주요언론들의 요직에 현 집권자의 측근들이 임명되고 언론의 공정성을 지키려는 진보적인언론인들은 강

을 투쟁이다.  
언론은 진실을 전달하고 정의의 편에 서야 한다. 민심에 역행하는 독재 《정권》의 편에 서는것은 언론스스로가 망하는 길이다.  
남조선의 언론인들은 언론의 자유를 되찾기 위한 투쟁을 끝까지 벌여 승리할 때까지 남조선사회의 흐름을 바르게 선도해나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윤현주

지난 1월 30일 남조선의 《한나라당》이 기존의 정강, 정책이라는것을 뜯어고쳐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이름밑에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인터넷 《통일뉴스》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다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나라당》이 30일 《대북정책》과 관련해 변화를 밝힌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18개 조항으로 이뤄진 기존의 정강, 정책을 10개 분야 23개 정책으로 바꾸고 이들도 《국민과의 약속》으로 바꾸기로 의결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의 관심을 끄는 대북은 단연 통일문제와

## 남조선 방송로 조 총파업에 돌입, 각계가 지지

남조선 《CBS》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의 《MBC》방송로조가 1월 30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단체는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파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독단과 진취를 일삼는 《MBC》방송사 사장 김재철이 물러날 때까지 파업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단채는 주장하였다.  
로조의 파업투쟁을 각계가 적극 지지하고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번 파업은 지난 4년간 지속되어 온 현 《정권》의 방송장악에 파열구를 내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김재철이 무너져



## 《대북정책》을 바꾼다고?

의 실질적인 내용이 바뀌고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한편에서는 민주통합당의 《대북정책》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일변했다고 지적합니다.  
말이나 문서는 무엇이든 할수 있습니다. 말의 상

가는 권력을 뚫고 스스로 물러나기를 거부한다면 시민들이 그를 기어아 붙여넣기라고 경고하였다.  
언론로조도 이날 《MBC》방송로조의 파업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본사기자

관련된 부분입니다. 《한나라당》의 기존 정강, 정책에서 강령 18조는 《북한의 개혁, 개방을 지원 내지 촉진토록 노력하며 북조선의 인권증진과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

## 남조선 방송사 언론인들 제작 거부 투쟁 전개

남조선 《MBC》방송사 언론인들이 당국의 언론탄압책동에 항의하여 1월 25일 전면적인 제작 거부투쟁에 돌입하였다.  
《MBC》기자회, 영상기자회 소속된 기자, 방송원들은 현 집권자가 자기의 측근들을 방송사의 요직에 들여 앉힘으로써 《MBC》방송을 시청자들로 부터 신뢰를 잃고 가장 불공정한 언론기관으로 만들었다고 개탄하였다.  
그들은 내국동주체부지매일사건과 같은 권력총들을 폭로하는 기사들이 축소보도되고 반값등록금실현과 남조선적미국 《자유주권정》 반대투쟁소식들은 언급들을 방송사의 요직에 들여 앉힘으로써 《MBC》방송을 시청자들로 부터 신뢰를 잃고

## 민족중시의 입장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

내외반통일세력의 간섭과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조국통일운동을 활력있게 떠밀어나가자면 온 민족이 민족중시의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민족중시의 립장을 견지한다는것은 말그대로 외세가 아니라 자기 민족을 중시하며 자기 민족의 의사와 리익을 절대시하는 원칙을 내세우고 그 원칙을 철저히 실현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모든 문제에서 자주적대와 민족우선, 민족옹호의 원칙을 양보하지 않으며 외세의 그 어떤 압력이나 공갈에도 굴복없이 민족공통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해나가는것은 견결한 민족중시립장의 발현으로 된다.  
민족중시는 우리 겨레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견지하여야 할 기본립장이며 좌우명이다.  
조국통일위업은 남조선에

## 《동맹강화》를 력설하면서

보수반동단체들을 전연에 내몰아 여러차례에 걸쳐 강하게 공화국의 최고준엄을 헐뜯고 소요를 선동하는 내용의 반공화국배까지 살포하는 광기까지 부리었다. 역적분당의 요구에 따라 남조선미국 《련합군사령부》와 미래평양군사령부도 조선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련동체



# 리명박역적패당은 우리의 대화상대가 될 수 있는가를 스스로 돌이켜보아야 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공개질문장

세해 정초부터 남조선괴뢰들이 북남 대화재개와 관계개선에 대하여 요란하게 떠들어대고있다. 요즘에는 부조러운줄도 모르고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있으니 우리더러 접촉당대에 하루빨리 나와달라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분주함을 피우고 있다.

지어 《기회의 창》을 놓치지 말라느니, 응답할 때가 되었다느니 하면서 제법 희미운 소리까지 제치고있다.

그러면서도 뒤에서는 《원칙론의 공간은 허물수 없다.》며 우리를 겨냥한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

연습일정을 모의하고 형형색색의 반공화국대결용모를 꾸미는데 여념이 없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역적패당의 이러한 음모가 북남관계개선이 선행되고 핵포기와 관련한 그 누구의 《전쟁성》이 먼저 확인되어야 한다는 미국상진의 부추김 밑에 연출되고있는것이다.

벌어지고있는 사태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일단 리명박역적패당이 제법으로 북남대화재개와 관계개선을 바란다고 광고한 이상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의사를 담은 아래의 공개질문에 명백히 대답할것을 엄숙히 촉구한다.

국의 능수, 첩련과한 악한들과 마주앉아야 하였는가.

남조선당국자들이 대화와 접촉을 것처럼 바란다면 《천안》 호사건의 《북관련설》을 내뿜으며 반공화국소동을 벌리고 우리의 자위적조치를 《군사적

도발》로 매도하여온 지금까지의 죄행에 대하여 민족앞에 사죄하며 남조국을 꾸민 당사자들을 처벌하고 더이상 남을 함부로 걸고드는 악습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것을 세계앞에 공언하여야 한다.

있다. 그래서 시작한 개성공업지구의 협력이고 금강산관광이었다.

그러나 리명박역도는 집권 4년간 개성공업지구의 협력은 《북만을 위한 길》이라고 제동을 걸었고 금강산관광은 제 잘못으로 죽은 그 누구의 사건을 구실로 중단해버리는 망동을 부렸다.

마치 북남협력교류가 있어 우리 군대가 덕을 보고 그것으로 우리의 핵역제력이 마련될것처럼 소란을 피운것이 바로 리명박역적패당이다.

사건의 진상규명이요, 재발방지대책이요, 신변안전보장이요 하는 리명박역적패당의 떠벌임은 구경은 협력과 교류를 차단하려는 한갖 구실에 지나지 않았다.

괴뢰들과의 협력과 교류가 없이도 지금껏 살아왔고 앞으로 더 잘살아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이며 강한 핵억제력을 보유한 당당한 군사대국이 다름아닌 우리 공화국이다.

교류와 협력의 진가도 제대로 가늠하지 못하는 무지의 리명박역도가 그때 우리의 대화상대로 될수 있단 말인가.

결코 몇종 안되는 아이들의 《영양식품》에 놀아날 우리가 아니다.

남조선당국을 대화에 대하여 묻하기 전에 교류와 협력에 대한 거제의 지향과 요구를 깃잡은 죄행을 반성하고 진정으로 민족의 평화변영과 공리공영을 도모하는 방향에서 교류와 협력을 재개하고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여야 한다.

### 1. 우리 민족의 대국상앞에 저지른 대역죄를 뼈저리게 통감하고 사죄할 결심이 되어있는가.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난해 12월 민족이 당한 대국상앞에 저지른 리명박역적패당의 죄악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때 역적패당은 온 겨레와 인류가 전대미문의 비애에 잠겨 피눈물을 쏟으며 상실의 아픔을 함께 나눌 때 유독 앞장서서 우리의 아픈 가슴에 못을 박고 쓰러진 상처에 칼질을 하는 잔당을 부리었다.

우리가 남조선당국과는 영원히 상종하지 않겠다는 원칙적립장을 천명했는데도 구경은 역적패당의 천인공노할 악행때문이었다.

그런데 저지른 죄행에서 웅당한 교훈을 찾을새선 최근에는 또다시 우리 군대와 인민이 흘린 슬픔과 비애의 눈물을 모독우롱하고 감히 대국상의 진실까지 무덤하게 날조하여 반공화국소락선전장기를 부리는 참을수 없는 2중대

역죄를 쌓고있다. 그때 우리가 사람가죽을 쓰고는 도저히 할수 없는 못된짓만 골라가며 해대는 불한창들, 아무런 지적자각도 초보적인 딜도덕도 없는 매를아들과 마주앉아야 하였는가.

민족적인 대화와 접촉은 인간 대 인간으로 될 때 비로소 겨레가 바라는 결실을 얻을수 있다.

남조선당국이 굳이 우리의와 대화와 접촉을 재개하고 북남관계개선을 바란다면 무엇보다 먼저 만고역적 리명박역적도와 그 패당들을 민족의 이름으로 심판하여야 할것이며 련이어 저지른 대역죄를 인정하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사죄하여야 하며 다시는 우리 최고존엄을 건드리고 신성한 우리 제도와 일심단결을 흔들보려고 어리석게 높아대지 않겠다는 확답부터 하여야 한다.

전쟁과 대화는 쌍립될수 없다. 속에 칼을 품고 달려드는 원수와 마주앉아 평화를 론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진정으로 대화를 바라고 관계를 개선할 용의가 있다면 상대를 해칠 칼을 버리고 분위기부터 먼저 조성하여야 한다.

지난날 우리가 대화와 접촉이 아무리 소중하여도 일단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전쟁연습이 터지면 그것을 중단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곤 한것도 바로 그때문이다.

요즘 리명박역적패당은 《대화》타령을 늘어놓으면서도 괴뢰군부호전광

들을 미국에 보내어 2월말부터 벌릴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일정을 모의하고 그 누구의 《군사적도발》에 대비하여 작성한 작전계획에 서명하는 광면국을 연출하고있다.

앞에서는 대화의 손을 내밀고 뒤에서는 동족을 해칠 칼을 갈고있는것이다. 스키치날수 없는것은 민족이 당한 대국상으로 아픈 가슴을 그대로 안고있는 우리의 애도기간을 골라 동족을 노린 침략전쟁연습을 강행하려고 획책하고있는것이다.

가리고있는 대화의 연막, 관계개선의 베일이 너무나도 얇지 않는다.

남조선당국은 평화와 전쟁, 대화와 대결의 기로에서 어디로 갈것인가 하는 의문을 명백히 밝히야 한다.

진정으로 대화를 바란다면 사태와 외세의존에서 벗어나 동족을 반대하는 전쟁연습부터 전면금지할 결단을 내리야 한다.

지금 우리 나라의 정세는 평화도 전쟁도 아닌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미 전쟁국면으로 기울어진지 오래다.

이러한 정세의 흐름은 전쟁의 포화가 멎은 때로부터 반세기 지났지만 냉전의 유물인 정전체제가 그대로 지속되고 교전관계가 그대로 남아있는것과 관련되어있다.

여기에는 입으로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하여 외우면서 행동으로는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영구강점에 기초하여 북침전쟁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려온 미국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

침미사태와 동족대결에 환장이 되어 상진의 옷자락을 붙잡고 북침전쟁국면을 몰아온 리명박역적패당에게는 더 큰 책임이 있다.

요즘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중시한다는 미국의 군사전략이 공개되기 바쁘게 미제침략군의 영구강점을 포

함한 미국의 변함없는 《군사적지원과 안전담보》를 받아내려고 동분서주하고있는것이 바로 리명박역적패당이다.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체제수립을 목적으로 우리가 이미 시작한 조미최고위급군부접촉을 각방으로 방해하고있는것도 다름아닌 리명박역적도이다.

온 민족이 반전평화의 구조를 높이고 내외호전세력들의 무모한 군사적도발과 무력증강, 전쟁연습소동 등을 짓부시는 투쟁을 벌려나가고있는 때에 오직 리명박역적도만은 이러한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고있다.

리명박역적패당이 진정으로 대화를 바란다면 무엇보다도 조선반도평화보장의 기본장면에 미제침략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는데 앞장서야 하며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려는 우리의 정당한 립장에 무조건 호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여야 한다.

### 2.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전면리행할 의지를 내외에 공식 표명하겠는가.

력사적인 두 선언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우리 민족의 절충한 령도자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남기신 애국, 애족, 애민의 유산이며 불멸의 조국통일강령이다.

두 선언에 대한 립장과 태도는 애국과 애족, 통일과 분열을 가르는 시금석으로 된다.

두 선언의 진리성을 부정하면서 민족적화해와 평화변영을 안아온 선언의 민족사적성과를 하루아침에 말아먹은것도 다름아닌 리명박역적패당이다.

지금 이 시각도 리명박역적도는 청와대의 안방에 틀어앉아 동족대결각본인 《원칙론》을 외위대며 《비핵, 개방, 3 000》을 실현할 흉계를 꾸미며고 있다.

물건대 과연 우리가 민족이 바라는 일을 골라가며 방해하고 북남관계를 수습할수 없는 과국어로 몰아가면서 통일의 길에 장애만 조성하고있는 반역의 무리들과 마주앉아야 하였는가.

진정한 대화와 접촉은 민족공동의 전취물인 력사적인 두 선언을 리행하는 길에 있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대화와 관계개선을 바란다면 두 선언을 부정하고 파기하려고 달려든 리명박역적패당을 매장해버려야 하며 동족대결의 산물인 《원칙론》과 《비핵, 개방, 3 000》 따위의 정적어린 정책을 흔적도 없이 물어버리며 그 어떤 경우에도 두 선언을 전면리행할것이라는 의지를 내외에 천명하여야 한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말그대로 북남조선의 전지역을 포괄하는 비핵화이다. 원래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온케된 핵정책에 따라 남조선당에 핵포기를 끌어들이던 괴뢰당국과 미국에 의하여 발달되었다.

따라서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대하여 혼란 때 우리가 괴뢰당국과 미국에 할말이 더 많다.

문제는 리명박역적패당이 적반하장적으로 《북핵폐기》에 대하여 상전과 함께 맞장구를 치며 외세의 핵위협에 맞서기 위해 마련한 동족의 핵억제력을 거세하려고 분수없이 높아대고있는것이다.

명백히 하건대 우리의 핵억제력은 동족을 해치기 위한 억제력이지 아니라 미국의 핵위협에서 동족을 지키기 위한 정의의 억제력, 자위적인 억제력이다.

력사는 핵은 핵으로, 미사일엔 미사일로 맞서지 않는다라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킬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이 핵위협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단 한번의 핵포기도 필요없게 될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명박역적패당은 미국에 불구하도 《북핵폐기》의 첫번째 나팔수가 되어 동시행동원칙의 의미도 모르고 그 누구의 《전쟁성》에 대하여 뉘그러서 오히려 미국의 《확장된 핵억제력》을 남조선에 끌어들이는 망동을 부리고있다.

우리가 이처럼 사태와 굴종, 외세의존이 체질화되어 미국의 핵으로 동족을 위협하는 역적패당과 마주앉아야 하였는가.

남조선당국은 대화에 대하여 떠들기에 앞서 마땅히 바른 자세를 가지고 조선반도의 핵문제에 대한 상식부터 제대로 배워야 하며 상진의 핵우산에서 벗어나 제 할바나 똑똑히 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북핵폐기》에 대해 주체당계 떠들듯이 아니라 제가 할핵폐기에 먼저 달려들겠다는 약속이나 민족앞에 똑바로 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 나라의 정세는 평화도 전쟁도 아닌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미 전쟁국면으로 기울어진지 오래다.

이러한 정세의 흐름은 전쟁의 포화가 멎은 때로부터 반세기 지났지만 냉전의 유물인 정전체제가 그대로 지속되고 교전관계가 그대로 남아있는것과 관련되어있다.

여기에는 입으로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하여 외우면서 행동으로는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영구강점에 기초하여 북침전쟁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려온 미국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

침미사태와 동족대결에 환장이 되어 상진의 옷자락을 붙잡고 북침전쟁국면을 몰아온 리명박역적패당에게는 더 큰 책임이 있다.

요즘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중시한다는 미국의 군사전략이 공개되기 바쁘게 미제침략군의 영구강점을 포

함한 미국의 변함없는 《군사적지원과 안전담보》를 받아내려고 동분서주하고있는것이 바로 리명박역적패당이다.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체제수립을 목적으로 우리가 이미 시작한 조미최고위급군부접촉을 각방으로 방해하고있는것도 다름아닌 리명박역적도이다.

온 민족이 반전평화의 구조를 높이고 내외호전세력들의 무모한 군사적도발과 무력증강, 전쟁연습소동 등을 짓부시는 투쟁을 벌려나가고있는 때에 오직 리명박역적도만은 이러한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고있다.

리명박역적패당이 진정으로 대화를 바란다면 무엇보다도 조선반도평화보장의 기본장면에 미제침략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는데 앞장서야 하며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려는 우리의 정당한 립장에 무조건 호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여야 한다.

### 3. 《천안》 호사건과 연평도포격전을 겪고 우리를 더이상 헐뜯지 않겠다는것을 세계앞에 공언할수 있는가.

북남관계가 오늘의 이 지경에 이른것은 리명박역적패당이 《천안》 호사건을 우리와 억지로 관계개신개시 운영도포격전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시키면서 반공화국대결에 나선것과도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미 여러차례에 걸친 국방위원회 집결단의 진상공개장으로 역적패당이 알아들으리만큼 진상을 밝힌바 있다.

날이 갈수록 남조선 각계에서뿐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주변대국들도 《천안》 호사건의 《북관련설》을 리명박역적패당의 날조국으로 락인하고있다. 지어 남조선을 잘 안다고 하는 서울주재 전 미국대사였던 도널드 그레그도 공식석상에서 역적패당의 《북관련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리명박역적패당만은 아직까지

지도 진실을 날조하여 동족을 헐뜯는데 《천안》 호사건을 악용하고있다. 연평도포격전 역시 우리 군대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괴뢰군부호전광들이 불법무법의 《북관련개신》고수를 목적으로 우리측 명해에 선불질을 해대어 일어난 사건이다.

잘못하여 얻어맞았으면 거기에서 웅당한 교훈을 찾으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적패당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우리 군대의 자위적조치를 그 무슨 《군사적도발》로 매도하고있다.

요즘에는 두 사건에 대한 저들의 억지가 통하지 않는다는것을 알아차렸는지 앞으로 대화가 재개되면 거기에서 문제의 사자들을 론의할것이라고 겁박선 소리를 내고있다.

그때 우리 군대와 인민이 이런 날조

### 4. 억압한 반공화국심리모략전에 계속 매달릴 작정인가.

심리모략전은 사실상 전쟁행위이다. 억압한 반공화국심리모략전이 거듭되면 필수목 첨에만 북남관계는 폭발으로 치닫게 되어있다.

이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립장은 이미 여러번 천명되었다.

그러나 리명박역적패당은 우리의 인내와 준비된 대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있다.

우리 민족이 대국상을 당한 때부터 인간쓰레기들은 물론 괴뢰군부의 전문요원들까지 총동원하여 우리 최고존엄을 건드리고 우리 제도를 헐뜯는 각양각색의 심리모략전에 더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지어 그것을 통하여 그 무슨 《금반사태》를 유도하고 《체제전복》을 이루

어보려는 어리석은 꿈까지 꾸고있다. 이러한 역적패당이 어찌 우리의 대화상대로 될수 있겠는가.

대화와 관계개선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모든 심리모략전을 중지하고 이에 가담한자들을 처벌하며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리행의 길에서 이룩된 모든 북남군사적합의들을 철저히 지켜야 할것이다.

리명박역적패당이 지금까지 반공화국심리모략전을 《인간소행》으로, 《국민정서》로 둔갑시켜 비호하고 조작시켜나간다면 북남관계는 더욱더 험악해질것이며 임의의 시각에 우리 혁명부류의 분노가 심리모략전의 본거지들을 재가루로 만드는 불바다점으로 이어지게 된다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북남협력과 교류는 민족의 공리공영을 위한 전민족적인 사업이다. 북남협력과 교류에 민족적화해와 단합, 평화변영과 통일로 가는 길은 누구에게나 자명하다.

남조선보수당국이 북남사이의 초보적인 민간교류사업에까지 찬물을 끼얹는것은 민족적화해와 통일로 향하는 사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민족, 반통일적악만을 덧씌우는것으로 된다.

오늘 남조선의 통일운동단체들은 《남북문제에 있어서 리명박(정권)과 같은(정권)이 연장되는것은 민족적인 큰 재앙》, 《이번(선거)들에서 리명박(정권)을 심판하고 정권을 교체해서 평화지향적이고 통일지향적인 정권을 세우는것, 그것이 정책을 바뀌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면서 반 《정부》 투쟁에 떨쳐나서고있다.

류우익을 비롯한 남조선보수당국자들은 북남관계문제를 골라가며 망치려는 대결너두리가 가져올 파괴적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입건사를 바로해야 한다.

북남협력과 교류는 민족의 공리공영을 위한 전민족적인 사업이다. 북남협력과 교류에 민족적화해와 단합, 평화변영과 통일로 가는 길은 누구에게나 자명하다.

남조선보수당국이 북남사이의 초보적인 민간교류사업에까지 찬물을 끼얹는것은 민족적화해와 통일로 향하는 사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민족, 반통일적악만을 덧씌우는것으로 된다.

오늘 남조선의 통일운동단체들은 《남북문제에 있어서 리명박(정권)과 같은(정권)이 연장되는것은 민족적인 큰 재앙》, 《이번(선거)들에서 리명박(정권)을 심판하고 정권을 교체해서 평화지향적이고 통일지향적인 정권을 세우는것, 그것이 정책을 바뀌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면서 반 《정부》 투쟁에 떨쳐나서고있다.

류우익을 비롯한 남조선보수당국자들은 북남관계문제를 골라가며 망치려는 대결너두리가 가져올 파괴적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입건사를 바로해야 한다.

북남협력과 교류는 민족의 공리공영을 위한 전민족적인 사업이다. 북남협력과 교류에 민족적화해와 단합, 평화변영과 통일로 가는 길은 누구에게나 자명하다.

남조선보수당국이 북남사이의 초보적인 민간교류사업에까지 찬물을 끼얹는것은 민족적화해와 통일로 향하는 사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민족, 반통일적악만을 덧씌우는것으로 된다.

오늘 남조선의 통일운동단체들은 《남북문제에 있어서 리명박(정권)과 같은(정권)이 연장되는것은 민족적인 큰 재앙》, 《이번(선거)들에서 리명박(정권)을 심판하고 정권을 교체해서 평화지향적이고 통일지향적인 정권을 세우는것, 그것이 정책을 바꾸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면서 반 《정부》 투쟁에 떨쳐나서고있다.

류우익을 비롯한 남조선보수당국자들은 북남관계문제를 골라가며 망치려는 대결너두리가 가져올 파괴적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입건사를 바로해야 한다.

북남협력과 교류는 민족의 공리공영을 위한 전민족적인 사업이다. 북남협력과 교류에 민족적화해와 단합, 평화변영과 통일로 가는 길은 누구에게나 자명하다.

남조선보수당국이 북남사이의 초보적인 민간교류사업에까지 찬물을 끼얹는것은 민족적화해와 통일로 향하는 사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민족, 반통일적악만을 덧씌우는것으로 된다.

오늘 남조선의 통일운동단체들은 《남북문제에 있어서 리명박(정권)과 같은(정권)이 연장되는것은 민족적인 큰 재앙》, 《이번(선거)들에서 리명박(정권)을 심판하고 정권을 교체해서 평화지향적이고 통일지향적인 정권을 세우는것, 그것이 정책을 바꾸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면서 반 《정부》 투쟁에 떨쳐나서고있다.

류우익을 비롯한 남조선보수당국자들은 북남관계문제를 골라가며 망치려는 대결너두리가 가져올 파괴적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입건사를 바로해야 한다.

### 4. 위 선자의 대결본심

지난 1일 남조선의 통일부장관인 류우익이 어느 한 강연회에서는서 자기의 대결본심을 그대로 드러내보였다. 강연회에서 그는 《북이 변화를 향해서 움직일수 있는 계기》를 맞았다느니, 《이것이 남북관계가 열리는(기회)로 되기를 바란다.》느니 뉘니 하며 횡설수설했다가 하면 《북이 대화로 나올 때는 민생경제회복의지, 립전국가 및 세계와의 협력의지, 무력이 아니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나와야 한다.》고 주체담은 소리를 치 하였다.

마치 북남관계가 오늘과 같은 최악의 지경에 처한 것이 북대본민들이 그 무슨 《변화》를 또다시 선포한것은 북남관계가 과국어로 몰아넣은 저들의 죄악을 가리우고 대결정책을 앞으로 계속 실시하려는 기도를 드러낸 파렴치한 꾀인이 아닐

수 없다. 류우익이 여기서 늘어놓은 그 무슨 《기회》라해도 남조선의 현 집권자가 세해복두에 내뿜은 《기회의 창》라령의 연장관으로서 언급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것이다. 여기에는 지난해 12월에 있는 민족의 대국상을 저들의 《흙수통일》 야망을 실현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에 대해 《나쁜 선택과 좋은 선택이라는 《선택의 시기》라느니, 《내가 정리되면 전향적태도를 기대한다.》느니, 《북이 변화를 향한 의지를 갖고 대화로 나오라.》느니 한 망발들은 그가 어떤 위선자이며 남조선보수당이 떠든 《유연성》이 과

연 무엇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집권전기 《비핵, 개방, 3 000》과 같은 동족대결정책을 고집하면서 북남관계를 돌이킬수 없는 과국상태에 몰아넣었고 여기에는 민족의 대국상앞에 천추만대에 씻을수 없는 대역죄를 저지른것으로 하여 인건이기를 스스로 그만둔 남조선보수패당에게 그 어떤 《기회》란 있을수 없다. 그 누구의

《변화》를 유도하여 저들의 더러운 야망을 실현해보려고 어리석게 높아대는 남조선당국자들은 온 민족의 규탄과 조소만을 받을뿐이다.

류우익은 이날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북측위원회가 실무접촉을 진행하기로 합의한것과 관련하여 《민간단체의 정치화

동자재를 당부한다.》, 《남북관계상황이 민간단체 민간단체가 나서서 정치활동을 하면 더 교질수 있다.》고 속이 뒤틀린 소리도 하였다.

북남관계가 오늘과 같이 과국에 처한 상태에서 북과 남의 민간단체들사이의 접촉과 대화마저 가로막힌다면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리행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사업이 전진할수 없으나

북남협력과 교류는 민족의 공리공영을 위한 전민족적인 사업이다. 북남협력과 교류에 민족적화해와 단합, 평화변영과 통일로 가는 길은 누구에게나 자명하다.

남조선보수당국이 북남사이의 초보적인 민간교류사업에까지 찬물을 끼얹는것은 민족적화해와 통일로 향하는 사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민족, 반통일적악만을 덧씌우는것으로 된다.

오늘 남조선의 통일운동단체들은 《남북문제에 있어서 리명박(정권)과 같은(정권)이 연장되는것은 민족적인 큰 재앙》, 《이번(선거)들에서 리명박(정권)을 심판하고 정권을 교체해서 평화지향적이고 통일지향적인 정권을 세우는것, 그것이 정책을 바꾸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면서 반 《정부》 투쟁에 떨쳐나서고있다.

류우익을 비롯한 남조선보수당국자들은 북남관계문제를 골라가며 망치려는 대결너두리가 가져올 파괴적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입건사를 바로해야 한다.

북남협력과 교류는 민족의 공리공영을 위한 전민족적인 사업이다. 북남협력과 교류에 민족적화해와 단합, 평화변영과 통일로 가는 길은 누구에게나 자명하다.

남조선보수당국이 북남사이의 초보적인 민간교류사업에까지 찬물을 끼얹는것은 민족적화해와 통일로 향하는 사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민족, 반통일적악만을 덧씌우는것으로 된다.

오늘 남조선의 통일운동단체들은 《남북문제에 있어서 리명박(정권)과 같은(정권)이 연장되는것은 민족적인 큰 재앙》, 《이번(선거)들에서 리명박(정권)을 심판하고 정권을 교체해서 평화지향적이고 통일지향적인 정권을 세우는것, 그것이 정책을 바꾸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면서 반 《정부》 투쟁에 떨쳐나서고있다.

류우익을 비롯한 남조선보수당국자들은 북남관계문제를 골라가며 망치려는 대결너두리가 가져올 파괴적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입건사를 바로해야 한다.

북남협력과 교류는 민족의 공리공영을 위한 전민족적인 사업이다. 북남협력과 교류에 민족적화해와 단합, 평화변영과 통일로 가는 길은 누구에게나 자명하다.

남조선보수당국이 북남사이의 초보적인 민간교류사업에까지 찬물을 끼얹는것은 민족적화해와 통일로 향하는 사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민족, 반통일적악만을 덧씌우는것으로 된다.

오늘 남조선의 통일운동단체들은 《남북문제에 있어서 리명박(정권)과 같은(정권)이 연장되는것은 민족적인 큰 재앙》, 《이번(선거)들에서 리명박(정권)을 심판하고 정권을 교체해서 평화지향적이고 통일지향적인 정권을 세우는것, 그것이 정책을 바꾸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면서 반 《정부》 투쟁에 떨쳐나서고있다.

류우익을 비롯한 남조선보수당국자들은 북남관계문제를 골라가며 망치려는 대결너두리가 가져올 파괴적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입건사를 바로해야 한다.



글욕정제결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전쟁도발에서 살기를 찾아서 후처집단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해치려는 남조선당국의 호전적책동이 더욱 악랄해지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합동참모본부의 장이관자가 미국을 행각하여 그 무슨 《국지도발 공동대비계획》이라는 침략문서에 정식 서명하였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남조선과 미국, 일본군부당국이 차관보급 비공개회담을 열고 그 누구의 《도발》에 대비한다는 구실밑에 긴밀한 《대북정보공유체제》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보다 앞서 남조선당국은 내외여론의 한결같은 항의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야합하여 2월말부터 4월말까지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사실상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해치기 위한 남조선당국의 반민족적행위의 산물로서 그들이 기어 이 민족의 머리에 전쟁의 불기를 몰아오려 하고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있지도 않은 《북도발》이라는 낱아 빠진 꾀조를 되풀이하는것은 동족을 적대시하고 긴장을 격화시키며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리명박일당과 같은 호전파들이 쓰는 상투적수법이다.

지금껏 리명박일당이 그 누구의 《도발》을 운운하였지만 그것이 언제 한번 현실로 되어본적이 없다.

오히려 남조선통치배들이 특대형 모략극을 조작하면서 공화국에 줄곧 도발을 걸어와 정세를 격화시켜왔다.

리명박일당이 북남대결을 추구하다 못해 동족의 불상사와 관련해 조의레절은 고사하고 비에에 잠긴 동족에게 총부리를 들이댄것자체가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극악한 도발행위이다.

얼마전에도 리명박일당은 군사적으로 가장 첨예한 지역인 서해 5개 섬일대에서 군부호전장들을 내몰아 2시간나 수천발의 포탄을 쏘아대며 북침

전쟁연습에 열을 몰았다.

언제 터질지 모를 전쟁화약같은 서해알바다에 미군함선을 비롯한 수많은 함선들을 집결시켜 각종 씨나리오에 따르는 전쟁연습들을 벌리려 하고있는것도 공화국을 반대하는 위협천만만 군사적도발행위가 아닐수 없다.

이처럼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지 못해 안달이난자들이 제아무리 《북도발설》을 요란스레 떠들어대 거기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아무도 없다. 리명박일당의 《도발》소동은 선제공격에 의한 북침전쟁기도로부터 출발한것이다.

남조선당국이 어른을 오도하고있는 까닭은 다른데 있지 않다.

지금 남조선당국은 최악의 정치적위기에 처해있다. 련이어 터져나오는 부정부패행위와 심화되는 내부갈등, 침체에 빠진 경제와 최악의 민생위기로 남조선당국은 벼랑끝에 내몰린 가련한 신세가 되었다.

한마디로 《실용정권》의 파멸은 피할수 없는 현실로, 시간문제로 되고있다.

남조선집권자가 군부대들을 싸다나며 대결분위기를 고취하고 군부호전세력을 전쟁도발에로 부추기고있지만 그것은 파멸의 위기에 빠진자들의 단말마적인 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목숨이 꺼져가는 때이라 북침전쟁을 도발하고불판이라는것이 남조선당국의 흥심인것이다. 리명박일당의 행동거지로 보아 그들이 꼭 일을 칠것 같다는것이 내외여론의 일치한 분석이다.

리명박일당이 외세에 빌붙어 북침전쟁소동을 배가하는것으로 죽어가는 목숨을 부지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오산이다. 대결과 북침전쟁소동은 결코 출로로 될수 없다.

그 어떤 외세도, 북침전쟁도발책동도 죽어가는 리명박일당을 건져주지 못 할것이다.

김성남

공화국은 올해공동사실을 통하여 조선반도평화의 기본장에물인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수시켜야 한다는데 대하여 천명하였다.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려는 공화국의 변함없는 원칙적립장은 세계 각국의 열렬한 지지와 찬동을 받고있다.

그러나 이와 배치되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이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나고 있다.

남조선에 대한 전례없는 미군의 무력증강책동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 1월 9일 미육군 제19지원사령부는 신형 《M1-A2 에이브람스》 탱크 60여대를 남조선에 끌어들이었다. 이에 뒤를 이어 남조선장점 미7공군은 제55대의원정비행대대소속 《F-16》 전투기 12대를 전북 군산기지에 배치하였다.

미국이 지난해 12월에 끌어들이 《F-16》 전투기까지 합한다면 한달도 못되는 사이에 전투기 24대가 남조선에 증강배치된것으로 된다.

한편 미국은 일본에 6개의 민강함만을 조선반도 《유사시》에 리용할수 있는 증요

미룰수 없는 미군철수문제

항만으로 규정하였다.

조선반도의 평화를 파괴하는 위협천만만 사태발전이 아닐수 없다.

알려진바와 같이 미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평화》에 대하여 요란하게 떠들면서 저들을 《평화호호자》로 자처하여왔다.

그러나 그것은 세계인민들의 각성을 호리게 하고 저들의 침략적이며 탐욕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음흉한 변장술에 지나지 않는다.

발칸전쟁과 아프가니스탄전쟁, 이라크침략전쟁은 《평화》타령의 허울속에 숨겨진 미국의 침략적이며 탐욕적인 성격에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미국의 《평화》타령은 뒤집어놓은 전쟁타령이다.

지금 조선반도는 《평화》의 막뒤에서 감행되는 미국의 반공화국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그 어느 지역들보다 정세가 매우 긴장되어있다.

단 한점의 불씨가 전면전

의 씨나리오》에 대비하고 경계를 계속 강화하고있다고 떠벌인것은 전조선반도지배실행을 위한 미국의 침략정책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는 증거로 된다.

남조선강점 미군은 미국의 대조선침략정책을 집행하는 선진대이며 돌격대이다.

남조선에서 침략군인 미군이 철수하지 않는 한 조선반도는 물론 세계평화와 안정은 언제가도 실현될수 없다.

우리 민족이 자체의 힘으로 통일을 이룩할 열의가 그 어느때보다 높고 세계가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요구 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통일의 방해자, 평화의 교란자인 미군이 더이상 남조선에 남아있을 그 어떤 명분도 없다는것을 뚜렷히 보여주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침략과 전쟁의 위협한은상이고 통일의 앞초이며 남조선인민들의 불행의 화근인 미군을 남조선에서 몰아내는 거족적인 성정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철호



북침전쟁도발에 관망하는 미군사관

하수인의 가련한 처지

어떤 일에서나 항상 일가견이 없고 주대가 없는 리명박 《정권》이 또 세상을 웃기는 정치회비극의 주역으로 뒤편으로 하여 남조선인민들로부터 더욱더 고립되고 있다.

이란산 원유수입을 줄이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한 리명박 《정권》의 비굴한 자세를 놓고서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알려진것처럼 미국은 이란의 자주적인 핵활동을 가로막기 위해 원유수출을 방해하면서 억지스러운 《제재》능을 벌려놓고 거기에 추종국가들을 끌어들이고있다.

여기에는 미국의 철저한 식민주의노릇을 하는 리명박 《정권》이라고 하여 레외로 되지 않았다.

이때문에 리명박 《정권》은 지금 몰살을 앓고있다.

원유수입을 줄이자니 그로부터 받는 경제타격이 클 것이고 미국의 강요를 거부하자니 상전으로부터의 팽배와 압력에 견디지 못할것이 기때문이다.

비례부터 현대그룹, 기아그룹 등 원유에 의존하는 대기업들이 타격을 받고있으며 그 여파는 삼성전자와 LG전자에도 미치고있다고 한다.

별수없이 《조절》이니 뭐니 하고는 있지만 미국은 말그대로 《고강도압력》을 들이대고있어 울며 겨자먹기로 따를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노예적절육의식으로 체질화된 리명박 《정권》의 구차한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시점이다.

미국이 한마디하면 남조선청장님들을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등에 대포방으로 서슴없이 들이밀고 유엔 무대에서도 거수기노릇을 해야 하는것이 리명박 《정권》이다.

상전의 눈에 들기 위해 남조선은 미국의 시장으로 내주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연기로 군사 《주권》을 포기하면서도 《자유국방》을 떠들어온것도 사실이다.

최근 련이어 드러나고있는 《천안》 호침몰사건의 진상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미국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수십명의 남조선군 장병들을 제물로 삼고 이를 전쟁책동강화의 구실로 삼은것도 리명박 《정권》과 같은 친미 굴종집단만이 할수 있는 망

지난 2일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새로운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하는 당명개정을 결정했다. 새 당명은 오는 13일 《한나라당》의 전국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최종확정된다고 한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30일 《한나라당》은 비상대책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연달아 열고 기존의 《정강정책》을 새로 개정하고 이름도 《국민과의 약속》으로 바꾸기로 하였다.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정강정책》에서 그들은 《유연한 대북정책》이니, 《국민행복》이니 뭐니 하는 기만적인 공약들을 늘어놓았다.

이 《정강정책》도 역시 오는 13일 전국위원회에서 최종확정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보수세력들은 《한나라당》이 《정강정책》 개정과 당명교체를 통해 그 무슨 큰 《변화》라도 일으킨것처럼 여론을 내몰리고있다.

그러나 보수세력들이 벌리는 이러한 놀음에 대한 민심의 반응은 지금의 저울날씨보다 더 차가운만 하다. 그것도 그렇것이 남조선

암흑의 세상을 지속시키려는 파쇼당

인민들의 눈에는 보수세력들이 벌리는 《쇄신》이니, 《변화》니 하는 놀음들이 민심을 우롱하는 한갓 말장난으로, 기만극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개정하기 바쁘게 민심은 《새로 기득권을 누리겠다는 것인가》고 비난하면서 《새누리당》, 《새미래당》, 《담머리당》이라고 야유조소하고있다.

립종에 처할 때마다 당명개정으로 위기를 모면해온 것은 보수세력들의 상투적인 수법중의 하나이다.

1995년 6월 《지방자치선선》에서 패한 《민자당》이 1996년의 《총선》을 앞두고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고쳐 겨우 살아난것은 그 한 실례이다.

이번에도 역시 보수세력들은 민심의 저주와 규탄을 받는 《한나라당》 간판을 《새누리당》으로 교체하는 알은 술수로 경악에 이른 저들의 비참한 운명을 견져보려 하고있는것이다.

보수세력들이 당명이나 바꾸고 《정강정책》이나 교체한다고 해서 그 무엇을 기대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선상, 기관사, 조라수, 선원이 그대로인채 기발이나 간판과 같은것이나 바꾼다고 해서 《한나라당》 호가 동족대결, 친미사대, 반인민적정책의 향로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는다는것이 여론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결코 틀린 소리가 아니다. 보수세력들이 《정강정책》을 놓고보자.

보수세력들이 북남관계에 관심이 있는듯이 《유연한 대북정책》을 떠들었지만 리명박일당은 그 《유연한 대북정책》의 막뒤에서 대국상을 당한 동족의 가슴에 칼질하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범죄를 서슴없이 저질렀다.

보수세력들이 철면피하게도 이번에 또다시 《유연한 대북정책》을 운운하지만 그것은 민족의 대국상기간 저지는 저들의 반인륜적범죄를 가리워주기 위한 변명이며 제변에 불과할따름이다.

그들이 진심으로 북남관계개선에 관심이 있다면 천

은 《한나라당》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달라질수 있겠는가. 민심의 저주를 받는 리명박 《정권》이자 《한나라당》이고 《새누리당》이자 리명박 《정권》이다. 색을대로 색은 현 집권여당에 권력을 다시 맡긴다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것이 아니라 암흑의 세상이 그대로 이어지게 될것이다.

보수세력들이 당명개정이니, 《정강정책》개정이니 뭐니 하며 분주함을 피워도 이미 등을 돌려낸 남조선인민들의 눈에는 《새누리당》으로 비쳐질뿐이다. 갈려도 아깝지 않는 녀망과 같은 《새누리당》을 민심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불태워버릴것이다.

본사기자 김응철

《〈새누리당〉이 아니라 새누리당》

《〈새누리당〉이 아니라 새누리당》. 《국민을 바보로 보느냐, 겁먹기를 바꾼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이라는 데 온갖 잡새가 날아들어서 그런가? 아니면 철새정치의 도래지라서, 요런 단박이다.》. 《〈새누리당〉이 아니라 새누리당》.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꾼것과 관련하여 남조선인터넷에 실린 글들중에서》



◁ 시든 《정부》 ▷

반역《정권》의 만고죄악을 고발한다 (1)

세상에 들도 없는 패륜《정권》

리명박보수 《정권》이 임기 1년을 남겨두고 심각한 위기에 처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실용》 파쇼독재를 반대하고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대중적인 항의운동과 시위투쟁을 련일 벌리고있다.

지배층내부에서 부정부패행위가 성행하고 올해 진행된 《선거》들을 계기로 정치적반란을 확장하기 위한 시정배들의 알뜰과 갈등도 깊어지고있다.

남조선에서 경제예속은 더욱 심화되고 대외채무가 러한 도의와 레의에 배치되게 무제한 행동을 하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비보가 발표되자 《북의 도발가능성》을 떠들며 전군에 《특별경계령》을 하달한데 이어 전정찰에 《감호비상계령》을, 전공무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으며 《안전보장회의》니 하는것들을 련이어 벌려놓고 이른바 《비상사태》에 대처할 《방안》이라는것까지 모의하는 소동을 벌렸다.

그뿐아니라 미일상전과 전화를 가지고 반공화국대결공조를 구걸해나서는가 하면 《북의 도발가능성》을 운운하며 교활하게도 그들의 철통같은 일심단털을 흔들어보려고 여러식게 늘어났다.

특히 보수패당은 군사분계선일대와 서해 5개 섬주변에서 전쟁소동에 더욱 광분하는것도 부족하여 인간쓰레기들을 내몰아 에도기간에 여러차례나 배라들을 풍선에



리명박의 통상을 박살내고있다. (남조선의 인터넷에 실린 동영상자료)

소리 깔질해버렸다.

우익깡패들과 파쇼경찰들을 내몰아 분항소들을 짓밟는 등 도처에서 고조되는 추모분위기를 억누르려고 광분하였으며 지어 에도의 뜻을 표시하는 남조선청년학생들과 각계 인사들을 악명높은 《보안법》에 걸려 체포 투옥하고 조의를 표시하러 북경길에 오른 각계 인사들의 앞길까지 총칼로 가로막는 파쇼폭거를 감행한것이 바로 리명박일당이다.

하여 리명박보수 《정권》은 남조선인민들로부터 《편협하고 치졸한 소인배》, 《시정형집배들의 쯤쟁이 (정부)》라는 오명파 규탄을 뒤집어썼다.

대국상기간 리명박일당이 보여준 반인륜적악행은 그들이야말로 세상에 들도 없는 패륜, 레의도 갖추지 못한 망나니무리라는것을 여지없이 보여준다.

리명박일당은 이 반인륜적죄악 하나만으로도 교수대의 울가미를 절대로 면할수 없다.

본사기자 주광일



◎ 백두산의 이름에 대하여 (2)

백산이라는 이름은 사시절 흰눈으로 덮여있는 산이라는 의미에서 생긴 이름이었다.

당시 사람들은 거의 한해동안 산이 흰눈 속에 덮여있다고 하여 이 산의 새와 짐승, 나무와 풀도 희다고까지 표현하였다.

머리에 흰눈을 이고있다는 뜻의 백두산이라는 이름도 백산과 거의 같은 시기에 나온 이름으로 인정된다. 즉 《팔지지》가 편찬된 7세기 전반기 훨씬 이전인 고구려중엽에 백산과 백두산이름이 발생하였을 것이다.

백두산의 다른 이름인 장백산이라는 이름은 백두산이라는 이름보다 얼마간 후에 생겨났다.

다른 나라의 역사책 《신당서》(1060년 편찬)의 압록수(압록강)에 대한 주석에서 두우(735~812년)는 《압록수는 평양성의 서북 450리에 있다. 수원은 말갈의 장백산에서 나왔다.》고 하였다.

다른 나라의 역사학자 리심전(1166~1243년)도 《압록수는 동북에 있는 장백산에서 흘러내린다.》고 하였다.

역사기록에서 백두산이란 이름이 처음 보이는 것은 8세기초이고 장백산이라는 이름이 처음 보이는 것은 9세기초이므로 각각 기록보다 훨씬 앞선 시기에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백두산이라는 이름

은 장백산이라는 이름보다 100년은 앞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백두산이라는 산이름이 705년의 기록에 나타난 이후에도 후기신라때는 널리 쓰이지 않았다. 그것은 후기신라시기의 기록에서 의연히 고대시기부터 써오던 태백산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삼국유사》의 발해건국과 관련한 주석에서 인용한 《삼국사》(구삼국사)와 《신라고기》(두책에서 태백산이라는 이름만 쓰고 백두산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다.) 기록들에서는 대조영이 태백산에서 나라를 세웠다고 하였다.

우의 두 책은 발해건국에 대하여 쓴 것으로 보아 발해건국책이 분명하다. 705년기록에 백두산이라는 이름이 알려진 때에도 불구하고 발해건국에 대하여 쓰면서 백두산이라고 하지 않고 태백산이라고 하였다.

백두산이라는 이름이 널리 보급된 것은 고려시기가 되었다.

《고려사》의 세계(왕조의 가계)에서 김관(12세기 중엽의 관리)이 쓴 《편년통록》의 기록에는 백두산이름이 세번 보인다.

이 책은 비록 12세기 중엽에 쓴 책이지만 거기에 실려있는 고려대조 왕건의 조상에 대한 전설

은 이미 918년 고려건국을 전후한 시기에 정리된 것이다.

따라서 이미 이때부터 백두산이름은 고려왕조의 먼 조상인 호경의 발생지로 인식되면서 널리 쓰이었고 불수 있다.

이후 《고려사》 기록에만도 백두산의 이름은 세곳이나 보인다.

사시절 흰눈을 머리에 이고 푸른 창공을 배경으로 솟아오른 장릉에 배부리를 하늘높이 거연히 치솟고있는 백두산의 이름은 매우 심오한 뜻을 담고있다.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아름답고 고상하며 성스러운 명산의 경관에 잘 어울리는 숭엄한 이름이라는 것이다.

다음은 우리 겨레의 고결하고 강직하며 부드럽고 결백한 슬기로운 민족성을 방불하게 반영한 조종의 산의 품격에 알맞는 이름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 산에 깃들여 있는 절세의 위인들이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한 애국애족의 력사,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력사를 줄기줄기마다 심오하고 풍부하게 담고있는 민족의 성산이라는 것이다.

우리 겨레는 백두산을 우리 나라의 조종의 산, 민족의 성산으로 영원히 사랑하며 긍지높이 자랑할 것이다.

후보원사 교수 박사 박영해

정월대보름이 하루하루 다가온다. 해마다 이맘때면 나는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달을 바라보면서 어릴 적에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가 추억속에 떠올러온다.

《정월대보름달을 제일 먼저 보면 소원이 이루어지고 복이 차려진단다.》

철없는 시절 나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었다. 《어머니는 보름달을 보고 복을 받았나요?》

《복?!...》

나의 어머니는 어린시절부터 남달리 그림그리기를 좋아했다. 입에 풀칠조차 하기 어려웠던 그 시절 모래판에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곤 했다는 어머니였다.

그런 어머니였기에 해마다 정월대보름날이 오면 남먼저 뒤산에 올라 두동실 떠오르는 쟁쟁한 달을 바라보며 (나에게도 그림을 그리면 필과 종이 가 있었으면...) 하고 마음속으로 외우곤 했었다.

하나 나라없는 그 세월 어린 소녀의 소박한 소원은 정든 고향을 떠나 현해탄을 건너는 피나리보짐속에 묻혀버리고말았다. 대신 어머니에게 차려진 《복》은 이 역사의 모진 고생뿐이었고 민족적멸망의 천대뿐이었다.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음력설 다음에 오는 첫보름을 정월대보름이라고 하여 크게 쇠어왔다. 정월대보름을 가리켜 《상원》이라고도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정월대보름은 세나라시기부터 전통적인 민족명절의 하나로 굳어져왔다.

정월대보름날 선조들은 달맞이, 쥐불놀이, 해불싸움, 탈놀이, 연피우기, 바줄당기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민속놀이를 즐겨하였다. 산에 올라 달구경을 할 때에는 자기의 소원을 빌면서 달을 향해 여러번 절을 하였으며 떠오르는 달의 빛과 형태, 위치 등을 보고 그해의 농사일을 가늠해보았다.

해불싸움은 달맞이를 한 다음에 벌여졌는데 여기에 용녀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져있다.

정월대보름에 가장 번창했던 민속놀이는 다리밟이

수필 **키가는 달을 바라보며**

현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겨레가 대대손손 바라던 꿈이 아닌가. 아니, 꿈에서조차 생각지 못하던 크나큰 복이 아닌가.

인민위원을 좌우명으로 새기신 절세위인들을 모시지 못했더라면 이런 복이 어떻게 마련될 수 있었는가.

취영청 등근 달이 미소를 짓고 이 땅을 바라본다. 예

나 지금이나 공책 한편의 소원도 못 풀어주는 설움의 달, 눈물의 달로만 보이던 정월대보름달이 오늘은 인민의 행복한 모습을 비추고있다. 달을 바라보며 복을 바라던 바로 그 인민이 오늘에 자기들의 행복한 모습을 달 속에 새겨넣는 긍지높은 인민이 되었다.

인민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해

그것은 변영할 조국의 래일, 자자손손 누려갈 인민의 만복을 위해 사랑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건강과 안녕이다.

정월대보름을 마중해가는 달은 인민의 그 소원을 아는듯 유난히 밝은 빛을 뿌리고있다.

본사기자 김춘경



**2월의 절기**

2월의 절기에는 립춘과 우수가 있다.

립춘은 대한과 우수사이에는 있는 절기로서 양력으로는 2월 4일경, 음력으로는 1월에 있게 된다. 립춘은 따뜻한 봄이 시작되는 시기라는 뜻이다. 립춘은 24절기의 첫번째 절기인 동지에 새해를 상징하는 절기라고 하여 립춘절이라고도 하였다.

립춘날에 집들에서는 대문기둥이나 대들보에 복을 바라는 글을 써서 붙이었는데 그것을 《춘축》 또는 《립춘축》이라고 하였다. 이날에 방밖의 집에 좋은 시나 글을 써붙이는 것을 《춘첩자》라고 하였다.

립춘이 농사의 기준으로 되는 절기라는데로부러 이날에 사람들은 보리뿌리

를 보고 그해의 일기조건을 가늠하기도 하였다. 보리뿌리가 세계이상인뎡년, 두개이뎡년, 한개이뎡년 이 든다고 하였다.

우수는 립춘과 경칩사이에는 있는 절기로서 양력으로는 2월 19일경, 음력으로는 1월에 있게 된다. 우수는 비가 오는 시기라는 뜻이다.

립춘에 동면하는 벌레와 짐승들이 돌아온다고 하여 우수, 경칩에는 얼어붙었던 대동강물이 풀린다고 하였다. 그것은 대동강이나 강의 중심부에 자리잡고있어 예로부터 삼천리극수강산의 기후를 특징짓는 중요한 강으로 되었기때문이다.

올해의 립춘은 2월 4일, 우수는 2월 19일이다.

본사기자

**추위를 몹시 우려하는 미역을 많이 먹으면**

겨울에 추위를 몹시 우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추위를 전혀 타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는 갑상선에서 분비하는 티록신이 많고 적은 것과 관계된다고 한다.

오르는 티록신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원료로서 갑상선에 서 티록신을 합성하는데 리 용녀다.

식물가운데서 미역에 요드가 제일 많이 들어있다. 때문에 미역을 많이 먹으면 갑상선에 서 티록신을 합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겨울철에 추위를 타는 사람들은 미역을 많이 먹으면 추위를 덜 타게 된다.

본사기자

**전통적인 민속명절 정월대보름**

떨쳐나서 다리밟이를 하였으며 이날밤만은 너자들의 바깥출입이 허용되었다.

정월대보름날에는 또한 매사를 아홉차례 되풀이해야 한다는 《아홉차례민속》이라하는것이 전해져 내려오는 아이는 《천자문》을 아홉번 읽어야 하고 나물케는 너자나 나물을 아홉바구니 처자 하여 장정들은 맨 나무 아홉짐을 해날라야 하고 늙은이는 사랑방에서 새끼 아홉발을 꼬아야 한다고

**민속놀이**

우리 선조들이 정월대보름날에 진행해온 여러가지 민속놀이가운데는 달집태우기도 있다.

달집태우는 정월대보름날이 떠오를 때 솔가지 등을 쌓아올려 만든 달집을 불태우는 놀이이다. 달집태우기에 앞서 마을의 어린이들과 청년들은 매 집들을 돌며 지신밟기(땅을 맡은 《신》을 밟아주기)를 한 다음 각 집이 짙이나 솔가지, 나무 등을 해가지고 산기슭이나 언덕에 모여든다고 한다. 그리고 모이들인 짙이나 솔가지로 무지를 쌓거나 조그마한 오두막과 다락같은 달집을 만들어놓는다.

달집의 형태는 지방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긴 막대기 3개를 삼각추모양으로 세우고 달이 떠오르는 동쪽편만 터쳐놓으며 나머지 두편은 모두 막아놓는다.

정월대보름날에는 한 마을에만도 이러한 달집이 수십개씩 생겨난다고 한다. 달집의 가운데는 새끼로 만든 달을 만들어놓는데 달이 솟아오르는것을 제일먼저 본 사람이 달집에 불을 놓는다고

**달집태우기**

한다.

달집태우기에는 풍요와 행운을 바라는 옛사람들의 소박한 념원이 담겨져있다. 산기슭이나 언덕에 세워진 달집에 불이 당겨 불길기 타오르면 사람들은 환성을 울리며 춤을 추며 즐긴다.

일부 지방에서는 불에 타는 달집속에 대나무를 넣어 태우는데 그것은 불속에 서 대나무가 터지면서 내는 소리에 마을의 악귀들이 쫓겨간다고 여겼기때문이라고 한다. 달집이 타는 불에 풍을 구워먹기도 하고 달집을 태우며 달을 향해 절을 하면 여름에 더위를 타지 않으며 일년내내 부스럼이 나지 않는다고 믿는 풍습도 있었다.

달집이 한꺼번에 잘 타오르면 풍년이 들고 만일 체라지 않거나 불이 제대로 불지 않으면 풍년이 든다고 했다. 또한 달집이 다 타서 넘어질 때 넘어지는 방향에 따라 그해의 농사작황을 가늠하기도 하고 이웃마을보다 자기네의 불길기 더 높기 타오르면 자기네 마을에 풍년이 온다고 믿기도 했다.

본사기자

**꽃으로 행운을 기원하거나 즐거움을 표시하는 일은 오늘날 많이 볼 수 있으며 그 모습도 매우 다양하다.**

사람들에게는 무엇인가 좋은 일이 있거나 위로할 일이 생기면 행운을 기원하며 꽃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관습이 있다. 이것은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무슨 사연들이 꽃에 그토록 많은 의미를 부여했을까? 대부분의 꽃은 따뜻한 곳에서 자라고 피어난다. 그리

**입칸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꽃**

므로 꽃이 있는 곳은 온기가 있고 추운곳에 비해 긴장이 풀이게 된다. 그리고 꽃은 아름답고 화사하고 정겨운가 하면 꽃향기는 사람을 좋은 마음으로 취하게 만든다. 꽃을 보면 사람들은 편안함을 느끼며 선한 마음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러한 꽃의 특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기를 찾게 만들고 단란 마음도 열리게 만든다.

꽃에 대한 인간의 관심은 여기에서 나왔다. 자신의

**오신채를 먹는 독특한 풍습**

에로부터 우리 민족에게는 봄계절이 시작된다는것을 알리는 절기인 립춘날에 오신채를 먹는 독특한 풍습이 있었다.

오신채는 지방마다 나물종류가 차이하지만 대체로 파, 마늘, 달래, 유채, 부추, 미나리 등 자극성이 강한 나물들중노란색, 붉은색, 파란색, 검은색, 흰색을 가진 다섯가지나물의 색채이나 순을 고추장, 겨자를 비롯한 양념을 섞어 버무린 나물무침이다. 립춘날에 먹는다고 하여 립춘채, 오춘채라고도 불리운 오신채는 시고 매운 맛을 내는것이 특징이다.

**유모아**

사냥군이 사슴을 찾아 산 판을 헤매고있었다.

이때 한 나무꾼아이가 그에게 가만히 다가오더니 《사슴이 저기 있어요.》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사냥군이 나무꾼아이가 가리켜

**작년 봄에 본 사슴**

사냥군이 사슴을 찾아 산 판을 헤매고있었다.

이때 한 나무꾼아이가 그에게 가만히 다가오더니 《사슴이 저기 있어요.》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사냥군이 나무꾼아이가 가리켜

**단편소설**

**약 (9)**

허둥지둥 풀숲을 헤치던 은숙은 숨이 막히고 기력이 진해 걸음을 멈추었다. 뒤쪽 아오는 소리가 이젠 들리지 않았다.

부지중 허리춤을 더듬는 손에 무언가가 미치었다. 엄갑걸에 만져보면 그는 눈을 좁뜨며 굳어져버렸다.

약, 약이었다. 아들에게 달여먹일 약!... 불시에 귀전을 울리는 아들의 슬기로운 울음소리에 머리가 핑 돌았다. 맥없이 늘어진 아들의 모습이 눈앞에 밝혀오며 심장을 비틀었다. 아, 어쩌면 좋아.

그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돌렸다. 정신없이 오던 길을 돌아서 달리기 시작했다. 발이 돌부리를 걸어서 피가 흘

렸으나 별로 아픔을 느끼지도 못했다. 산골에서 전지불빛이 번쩍 거렸다. 눈들이었다. 그 순간에야 그는 샘물에 전해야 할 비밀쪽지가 품안에 있다는것을 의식하였다. 비밀쪽지! 그는 우뚝 멈추어섰다. 회생된 남편의 엄한 얼굴이 뇌리를 스치었다. 가슴에서 무언가 쿵 떨어졌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온몸의 피가 발밑으로 빠져버리듯 갈았다. 아! 오열이 터져나왔다. 그는 비틀거리다가 갈래 쓰러지고말았다. 후속 호느끼며 풀로피를 마구 쥐어뜯었다. 두볼로 절망의 눈물이

때는 1950년 6월이었다. 샘골에서 그는 전쟁을 맞이했고 인민군대에 입대하였다. 그후로는 시어머니와 아들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하였다.

그때에도 그것이 영원한 리별로 되리라는 생각지 못했다. ... 조국해방전쟁 전기간 그리고 전후에도 은숙은 그 약을 소중히 보관해왔다. 약을 썼던 종이가 낡고 닳아 부스러져 다른 종이에 옮겨고 옮겨가는 과정에 여러첩 되었던 그 약이 이제 한첩도 되나 마나하게 줄어들었지만 그것을 버릴수는 없었으니 생사를 모르는 아들과의 령계가 그 약을 통해 이어지는데 같고 그 약을 버린다는것은 아들을 버리는것과 같이 생 각되었기때문이었다.

X

아들에게 주지 못한 그 약으로 하여 은숙은 고향의 토

질병약을 연구할 결심을 가지게 되었다.

헌데 그가 연구하려고 한 약은 공화국국민부가 아닌 남조선의 토질병약이기에 연구과정에 난감한 일들이

대환자가 아니었다. 무엇 보더라도 현지에 가볼수 없으므로 그 지방의 물과 토양에

대한 분석자료를 얻을수 없고 순전히 문헌자료에만 의거해야 하는 조건에서 자료 연구에만도 막대한 품이 들었다.

우선 토질병을 일으키는

그 균주를 잡기 위한 항생물질을 얻어내야 했다.

분렬의 장비가 가로놓이지 않았다면 단번에 쉽게 할수 있는 일도 그는 문헌자료에 파묻혀 많은 세월을 보내야 했다. 그것은 마치 한낱이라면 단번에 찾은 물건을 어둠속에서 순전히 기억과 감각에 의해 더듬어찾는것과도 흡사하였다.

옷방에 있는 책상우에는 늘 《미생물학》과 《생화학》, 《우리 나라 고려약의 성분과 약리작용》을 비롯한 고려의학참고서들이 쌓여있었고 밤길도독 그는 그 책들속에 파묻혀 지냈다. 낮에는 치료사업을 해야 하고 아침저녁에는 가정부인으로서 잡다한 가정사를 피할수 없었던만큼 그에게는 늘 시간이 모자랐다. 휴식일과 명절, 휴가기간이 그에게 있어 연구사업을 위해 짜낼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절대적인 시간의 부족으로 하여 그는 전문연구기관에서라면 단 몇달동안에 할 일도 여러해씩 두근 해야 했다. 국립도서관(당시)의 서고에서 필요한 자료를 뽑고 약초들을 채취하러 다니는 틈속에서 순전히 기억과 감각에 의해 더듬어찾는것과도 흡사하였다.

옷방에 있는 책상우에는 늘 《미생물학》과 《생화학》, 《우리 나라 고려약의 성분과 약리작용》을 비롯한 고려의학참고서들이 쌓여있었고 밤길도독 그는 그 책들속에 파묻혀 지냈다. 낮에는 치료사업을 해야 하고 아침저녁에는 가정부인으로서 잡다한 가정사를 피할수 없었던만큼 그에게는 늘 시간이 모자랐다. 휴식일과 명절, 휴가기간이 그에게 있어 연구사업을 위해 짜낼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